

전통 · 현대 어우러진 무형유산 아름다움

국립무형유산원, 1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합공연 '평릉[平弄]: 그 평안한 떨림'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안현순 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차례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종합공연인 '평릉[平弄]: 그 평안한 떨림(이하 평릉)'을 (사)정가악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업공연 '평릉[平弄]'은 종묘제례악, 판소리, 아리랑, 가곡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한 음악과 화려한 영상예술이 더해진 국악 공연(콘서트)이다. 2014년 서울남산국악당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총 242회의 공연을 통해 수많은 관객과 만났으며, 공연예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2023 공연유통협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 작품이기도 하다.



평릉[平弄] 공연 사진

공연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악과 한국의 대표 궁중음악 보허지의 일부를 재구성한 '아침을 여는 노래' △가곡과 판소리정가, 기타와 가야금이 한데 어우러지는 '나는 걷는다' △궁중음악 수제천과 노동요인 인천 뱃노래의 흥을 담은 '나는 그림자'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혼돈과 갈등의 감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나는 방향한다' △한국의 대표적 성악과 합창인 법파와 판소리가 무속선을, 사물놀이와 어우러지는 '나는 소망한다', 여청가곡 평릉의 가사와 선율을 재구성해 소박한 사랑과 소망을 아름답게 들려줄 '나는 사랑한다' △모든 연주자들의 독주와 함께 감동적인 마지막을 장식할 '다시 별에게 이르는 길' 등 총 6개의 음악으로 펼쳐진다.

(사)정가악회의 전재현 연출은 "도시 안의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인의 모습, 궁중무용 춘앵무가 잠입한 영상으로 표출되며, 연주 곡목(레퍼토리)마다 다채롭게 변화하는 영상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며 "인생의 시작과 만남, 고독과 방황, 그리움, 소망, 사랑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를 그리며 곡 사이 사이에 해설을 더해 관객의 몰입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974618>),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3013820>)을 통해 가능하며, 전석 1만 원이다.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음악과 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이 무형유산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또 다양한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제1호 명장 박광철 씨 선정

28년 경력 도자공예 기능장... 인증서·명패 수여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7일 2023년 김제시 명장으로 도자공예 직종의 박광철(팔봉도에 대표)씨를 선정하고 명장 인증서와 명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김제시 명장 선정은 대학교수 등 전문위원들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숙련기술인의 자격을 검증하고, 김제시 명장심사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박광철씨는 28년 경력의 도자공예 기능장으로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기적인 작품전 개최를 통해 본민민의 도자공예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기관 강의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장의 영예를 안게됐다.

시는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장



으로 선정하고 기술장려금(3백만 원)을 지급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명장을 발굴해 숙련기술자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숙련기술인의 비전과 자긍심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자신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이바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무주전

12일까지 20여명 작가 작품 전시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무주전이 오는 12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최북미술관 기획전실에서 개최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서예종합행사로 이번 '무주전'에는 무주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인연이 있는 작가 20여 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김난희 무주지회장(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은 "반딧불과덕유산, 머루, 낙화놀이 등 무주, 가을, 자연, 삶과 관련이 있는 시 등을 붓글씨로 옮겨 완성한 작품 20여 점을 보실 수 있다"며 "남은 전시 기간 꼭 한 번 오셔서 후·백의 조화가 주는 정갈함과 색채의 여운이 안기는 특별한, 그리고 안온함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운동주 시인의 시 '반딧불' 중 일부를 옮긴 김난희 작가의 '반딧불'을 비롯해 김수정 작가의 '산 비', 감용출 작가의 '무주찬시 茂朱贊詩', 김관곤 작가의 '청풍 淸風', 박관호 작가의 '춘심원락 春深院落', 박송이 작가의 '치자꽃 핀 날', 박정운 작가의 '덕유산 기행'과 만날 수 있으며 반한기 작가의 '풍설야귀인 風雪夜歸人'과 성본 작가의 '서산

대사 시 西山大師 詩, 송환운 작가의 '논어구학이 論語句 學而, 신선하 작가의 '머루', 오선희 작가의 '나그네', 이기택 작가의 '반조탄 晚釣灘, 이상건 작가의 '추월담 秋月潭, 이호영 작가의 '창호지에 떨어진 빗방울 하나, 이희봉 작가의 '신흥의 시 <송조림 申鈞의 詩 <送維翰', 전병재 작가의 '남공철 시 <입덕유 산속선실 南公徹 詩 <入德峪山宿禪室', 정희광 작가의 '낙화놀이', 하병숙 작가의 '칠연지혼 七淵之魂, 한명희 작가의 '덕산심수무계청 德山深秀武溪淸'이 전시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붓끝으로 표현해낸 작가님들의 마음이 보는 이들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전시 슬로건 대로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아' 코로나19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시작한 일상에 기운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음악으로 하나되는 진안군민 '평화 콘서트' 성료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진안군민 평화 콘서트'가 지난 7일 진안성당에서 진안군 4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 군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MC 최정은의 소개로 시작된 평화 음악회는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 원행큰스님·진안군 기독교 연합회장 신암교회 송희주 목사·원불교 서경은 교무·천주교 전국교구 진안성당 마태오 신부의 인사,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관내 각계 종교 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열리게 된 공연은 각 종교를 대표한 공연자의 무대와 국악·재즈밴드의 음악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공연은 기타 연주와 어우러진 보컬, 소프라

노, 베이스 공연 및 국악밴드 소리앓 재즈밴드 앙상블을 코로렐리의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는 함께한 모든 종교 지도자와 군민이 일어나 손을 잡고 그를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서로 다른 종교가 노래로 하나가 돼 하모니를 이루는 장관이 연출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4대 종교 대표자분들 덕분에 종교를 떠나 음악으로 하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이번 음악회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진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 제외 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